

담양 담빛문화지구, 자주재원에 큰 보탬

지난해 11월 아파트 680세대·택지 814필 준공 신규세원 174억 원...2020년 대비 37.2% 증가

담양군이 지난해 조성한 대규모 전 원택지개발사업단지인 담빛문화지구 가 자주재원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담양읍과 수북면 일원에 조성한 담 빛문화지구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680세대와 택지 814필지가 준공되어 아파트는 전 세대 취득 신고를 완료하고 주택단지에는 전원주택들이 활발 하게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담빛문 화지구에서 지방세 174억 원의 신규 세원 증대로 2020년 지방세 결산액이

전년대비 37.2%가 증가한 797억 원의 세수 증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인구 유 입에도 큰 성과를 거둬 지역경제에 활 기를 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단위 최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 정주여건 조성으로 단 지 내 교육시설, 병원, 유통시설 등이 들어서면 지방세수는 더욱 증대될 것 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담양군은 이외에도 메타프로 방스 관광벨트와 예코하이테크 담양 산업단지, 담주 다미담예술구 등 지역



경제의 개발역량을 키우는 내발적 발 전 전략을 통한 세수증대로 군민의 삶 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실현을 위

한 자주재원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저출산 극복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순호 구례군수가 저출산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의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3월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릴레이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적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자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김순호 군수는 유근기 곡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챌린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가정에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김대중 전 대통령 아카이브전

다음달 2일까지 '코리아 연대기-김대중 대통령의 기록' 전시

화순군이 4월 6일부터 5월 2일까 지 군립 석봉미술관에서 '김대중 대 통령 아카이브전'을 개최한다.

화순군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 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를 통 한 인류공생의 정신을 공유하고자

'코리아 연대기-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연다 고 밝혔다.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평생 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고인의 삶을 아카이브를 통

해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회로 김 대 통령과 관련된 서양화, 서예, 사진 등 을 전시한다.

1층 '제1 전시실'에서는 김 대통령의 역사적 순간을 회화로 그린 서기 문 전담대 미술학과 교수와 조현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층 '제2 전시실'에서는 확산 광정우, 무림 김 영기 등 서예작가 18명이 서예로 표 현한 김대중 어록 작품을 선보인다.

바로 옆 '석봉 전시실'에는 한 가

정의 가장의 모습부터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지도자의 모습까지 고인의 생애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4월 6일과 20일 오후 3시에는 김 대통령 정치 입문 67주년, 대통령 출마 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소프라노 김선희, 가수 정용 주 등 성악가, 민중가수 등이 공연을 하고, 광주문화방송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에 가면 소원 이루어지는 돌탑 있다"

북하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힘 모아 조성 계획

장성군 북하면에 소원이 이뤄지는 돌탑이 만들어진다.

군에 따르면 북하면은 마을 초입 약 수줍지공원에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탑을 쌓 고 있다. 돌탑은 썬지공원 중앙에 2개 가 조성되며, 북하면 이장협의회(회장 박삼수)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 동길) 회원들이 힘을 모은다.

돌탑쌓기의 선봉은 대흥리 주민 조 영두 씨가 맡고 있다. 조 씨는 "마을을 위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쁘다" 면서 "돌탑이 완성되면 큰 자부심을 느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기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 교육을 수료한 조 씨는 현재 북하면 화단 조성 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북하면은 최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요 도로가에 썬지공원과 가로 화단 6개소도 조성했다. 안보현 북하 면장은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하 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 해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화 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9일까지 방문 신청...이달 말까지 지역화폐 60만원 지급

나주시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미 신청자를 위해 오는 9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실 제 농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단 농업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 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 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 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나주사랑상품권 60 만원으로 적격 심사 후 개별 연락을

통해 4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관내 농업인 1만3297명을 대상으로 79억 7800만원 규모 공익수당 지급 업무를 개시했다. 4월 2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약 97%가 공익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수당 추가 신청 및 경영체 정보 확인, 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익수 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며 "수당 100%지급을 목표로 지역경제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과의 협력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코로나19 확산 여파 '세계장미축제' 결국 취소키로

비대면 영상 일부 행사만 추진

곡성군이 올해 5월 하순 개최할 예 정이었던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행정안전부 2017년 결산 기준 전국 최고의 흑자 축제로 알려져 있다.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장미공원에 피어난 1004종의 장미 수천만 송이는 해마다 수십만 명 의 관광객을 유혹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 해 장미축제를 열지 못했다. 인구 3만 이 되지 않는 작은 군이라 축제를 개 최하지 못한 여파는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지자 많은 사람들이 장미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지 궁금해했다. 곡성군도 방역과

지역경제 사이에서 고민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높아지 면서 곡성군은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축제는 비록 취소됐지만 곡성군은 코로나 이후를 위해 장미축제 비대면 홍보에 나선다. 현재 ▲유튜브를 기반 으로 한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송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 농특산 물 실시간 온라인 판매 ▲ 방송사 연 계 온라인 거리두기 버스킹 공연 ▲ '곡성세계장미 유키즈'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곡성군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나 마 우리 군과 아름다운 장미를 만나보 시면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시 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허균 <도문대작>

